

떠오르는 START UP 식스볼트



뿌리기술로 캠핑시장 공략…“스마트 제조시장 선도”

15년 금형가공 경력…광주TP 예비창업 육성사업 참여
‘모듈형 알루미늄 캠핑박스’ 출시…테이블·수납 등 동시
자사몰·오프라인 매장 납품…자체 제조공장 설립 목표

코로나19 이후 캠핑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캠핑 전문 브랜드와 협업 상품이 잇따라 선보이는 등 캠핑용품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캠핑을 경험하고 싶어도 값비싼 용품 가격 때문에 또는 커다란 장비를 보관할 곳이 미瘴지 않아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

광주 동구 동명동 I-PLEX 입주기업인 ‘식스볼트(SIXBOLT, 대표 박관우)’는 이 같은 고민을 가진 캠핑족을 위해 개념비, 안정성을 갖춘 캠핑용 박스를 개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박관우 대표(39)는 15년간 광주 한 제조업의 금형 연구소 공장장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에어드레서,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가전 금형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제조기업이 독자 브랜드 개발과 제품 혁신에 대한 의사결정 자체를 망설이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고, 대기업 하청과 용역 중심 구조, 운영비 축소로 이어진 점을 아쉬워했다.

박 대표는 창업에 뜻을 두고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중 해외 제품 의존도가 높은 캠핑용 박스를 떠올렸고, 2023년 ‘금속가구제조’ 창업 아이템으로 광주 테크노파크 예비창업 발굴 육성 사업에 참여했다.

박 대표는 “캠핑을 취미로 하며 다양한 캠핑용품을 사용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주말마다 시장조사를 하고 캠핑용 박스 시제품 제작처를 돌아다녔다”고 회상했다.

이어 “많은 시험착오를 겪으며 설계 도면을 만들

었고, 경기도 광주, 의정부의 한 제조업체를 찾아 OEM·ODM을 맡겼다”며 “캠핑용 박스를 연구하며 캠핑 본연의 즐거움과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식스볼트는 ‘실용성을 담은 라이프스타일 캠핑’을 목표로 금형 가공 기술력, 디자인, 브랜딩, 마케팅, 판매 등 전 과정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약 7개월간 연구개발을 거쳐 지난해 5월 ‘모듈형 알루미늄 캠핑박스’를 처음 출시했다.

제품의 특징은 테이블, 수납장 기능 등을 한 번에 한다는 점이다. 고급 알루미늄 소재로 견고함을 올렸고, 스크래치 걱정은 줄었다. 또 높이 조절 시스템을 활용해 해변사진 지형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수납을 담당하는 알루미늄 박스에 쉽게 정리할 수 있는 툴(몰리페널)을 제공한다. 야외 활동에서 필요 한 텐트, 칼, 도마, 버너 등 모든 제품의 수납을 자신

만의 스타일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고급 소재로 제작돼 경량화와 내수성을 갖췄다.

제품은 입소문을 타면서 광주와 전북, 영남권 캠핑 매장에 입점하며 인지도를 확장 쌓았다. 현재 자사몰, 네이버스토어를 비롯해 오프라인 캠핑용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제품 품질은 물론 다양한 문의 응대력 만점”, “크기·조립·내구성 모두 최고”,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해요” 등 긍정적인 반응



박관우 대표

을 보이고 있다.

박 대표는 다양한 대외 활동에 참여하며 회사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그는 지난 10월 동강대학교 창업보육(BI) 센터 주관 광주·전남지역 창업 경진대회에서 ‘골프 말뚝’ 아이템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또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14기 대표회장을 맡아 영호남 별빛교류 인적교류, 경제계 기관장 멘토링을 주관하며 인적 교류의장을 넓혔다.

이외에도 예비창업자 등 사업 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초기 사업자의 데이터 역량, 제품 양산, 원가 측정 등을 돋고 있다. 사진·영상 촬영, 지원사업 제안서 작성 등 마케팅 업무도 하고 있다.

회사는 광주테크노파크와의 인연을 계속 맺고 있다. 예비창업까지 사업을 시작으로 광주 동구 등명



목표로 설정했다.

박관우 식스볼트 대표는 “앞으로도 금형·가공 중심의 뿌리산업을 디지털 제조로 전환하는 스마트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리쇼어링 플랫폼 확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며 “뿌리산업이 다시 시장에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제조·판매 일체형 모델을 구축해 제조업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다각화된 수의 구조를 보유하고 모듈형 캠핑 기구 등 자체 제품 제조공장을 만들겠다”며 “캠핑박스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더 개선된 제품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 수도권 바이오기업 생산 허브로 부상한다

전남바이오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과 연계 협력
CDMO 인프라 개방…수도권 기업 생산 병목 해소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수도권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한 CDMO(위탁개발·생산) 지원을 본격 확대하며 전국 단위 상생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교 등 수도권의 R&D 중심 기업들이 겪어온 생산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전남의 제조·임상·기술지원 역량으로 해소하는 구조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원장 윤호열)은 지난 8~9일 성남산업진흥원과 함께 ‘전남·성남 기업 연계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전국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생물의약품 GMP 생산, 천연물의약품 원료 제조, 건강기능식품 생산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4월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이어온 협력 네트워크를 한 단계 확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성남산업진흥원은 전남바이오진흥원이 보유한△생물의약품 GMP 생산시설△천연물의약품 원료플랜트△건강기능식품 제조 인프라 등을 직접 방문해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수도권 기업들은 R&D 역량과 기술 기반은 높지만, 대량 생산·공정개발·GMP 인프라가 부족해 제품 상용화 단계에서 복병에 직면해 왔다.

진흥원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CDMO 개방형 플랫폼을 강조하며, 초기기업·중소기업 대상 전주기 생산·품질·규제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소개했다. 실제로 생물의약품 위탁생산, 천연물의약품·원료물질 생산, 건강기능식품 제조 전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수도권 기업들의 관심을 끌어온 핵심 요소다.

윤호열 원장은 “수도권 기업의 생산 이로는 국내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주)지엔이피에스, 무정전 전력공급시스템 개발

전남TP 지원기업…대용량 고신뢰 전력공급 구매계약

(주)전남테크노파크는 지원기업인 (주)지엔이피에스가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를 통해 CTTS(Closed Transition Transfer Switch)와 Hybrid ESS(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한 무정전 전력공급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원 전환 시 전압·주파수 차이를 실시간 동기화해 2~4ms 이내 무정전 전환이 가능한 대용량 고신뢰 전력공급 기술이다.

대용량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장치를 이용해 피크부하 저감, 부하평준화, 수요반응(DR)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가 전력망 안정화와 전력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 제품은 중기부 ‘2025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선정돼 550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 현재 13억원 상당의 도입계약체결과 5억원 상당의 계약을 진행 중이다.

지엔이피에스는 중기부·전남도가 지정한 지역특



화기업(예전에 50+ 기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각종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CTTS·ESS·PCS·지능형 배전체계 등 전력변환 기기 분야 특히 18건을 확보하며 기술사업화를 확대했다. 또한 중기부·조달청 혁신제품 등록기업으로서 산업·공공 분야에 고신뢰 전력공급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이창호 (주)지엔이피에스 대표는 “공공 인프라의 전력 복원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약속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